

‘202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결과보고



가. 개요

- 주 제: 재정상태표 기반의 국가재정 관리 및 지자체의 발생주의 지표 활용
- 일 시: 2022. 6. 24.(금) 09:00~12:10
- 장 소: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주 최: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 관: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주제발표 및 토론〉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

[사 회] 강인재 원장(재정성과연구원)

[발표1]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2] 주요국의 재정상태표 접근법을 활용한 재정관리 동향
(한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3] 국가별 총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 론] 이상열 교수(한양대), 박상연 교수(배재대), 김철희 본부장(한국공인회계사회)

나. 발표 및 토론 요약

• 주요 발표 내용

발표1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윤영훈 초빙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GDP 대비 252%로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하며 2008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부 부채 증가율은 낮다. 민간부채에 대한 공공부문의 보증은 경제위기 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GFSM에서는 민간부채의 정부보증에 대한 기대 이득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관련 부채의 공공부문 보증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가 우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채무의 규모를 분석하는 동시에 민간 주택 관련 부채의 공공부문 보증에 대한 재정위험을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보증 관련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보증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의 제1요인은 주택 관련 보증의 급격한 성장 때문이다. 국내 보증 잔액 점유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인 주요 3개 기관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최근 보증수요의 증가에 따른 보증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 보증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형태로 공시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 말 보증채무의 규모는 12.5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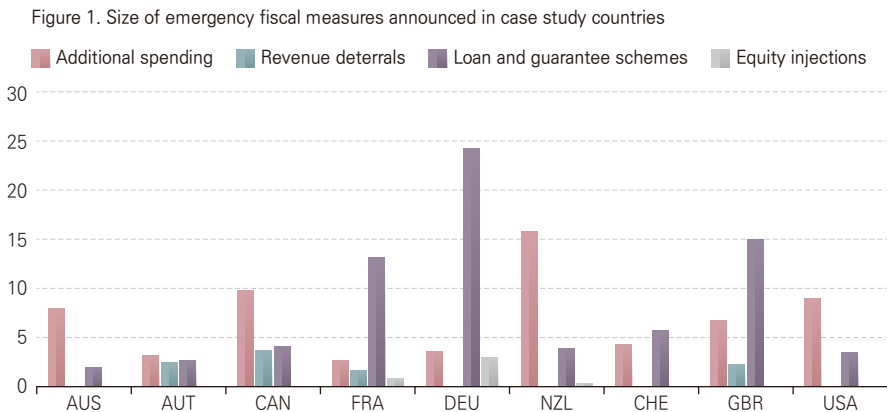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 윤영훈 초빙연구위원 발표(6. 24.)

공공부문 보증제도에서의 재정위험은 해당 예상 손실 및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더 커져 정부가 수립한 재정계획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 즉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위험 추정을 통해 현행 보증잔액 및 보증충당부채 설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추후에 연구자는 경제위기 시 민간의 주택 관련 대출을 보증하는 공공부문 보증기관의 재정위험에 미치는 영향 추정, 기타 금리 등 시장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 공공부문 보증 관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2 주요국의 재정상태표 접근법을 활용한 재정관리 동향
(한소영 국가회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상태표 접근법이란, 재정상태표에 기반한 재정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정책설계 및 비용추정, 위험관리, 예산 책정 및 보고 등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재정상태표 기반한 정책은 지급보증, 융자, 출자 등을 말하며, 즉각적인 재정 적자로 나타나지 않고, 정부의 자산부채로 표시 관리되며, 재정적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난다. 최근 재정상태표 기반한 정책을 활용하는 빈도와 그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어 정부 재정상태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 코로나19 대응 시 OECD 주요 국가에서 추가적인 정부 지출 대신 융자, 보증, 출자와 같은 재정상태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활용이 증가함을 들 수 있다.

그림 1 OECD 국가, 코로나19 대응 시 재정상태표 기반정책의 활용 증가(융자, 보증, 출자)



출처: Moretti, Delphine, Thomas Braendle, and Alexandre Leroy, "Balance sheet-based policies in COVID-19 fiscal packages: How to improve transparency and risk analysis?," *OECD Journal on Budgeting*, 2021(2), 2021, p. 4, Figure 1.

공공재정관리를 위해 재정상태표를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정부의 핵심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증대할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② 작은 개선사항으로 상당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③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고 경제적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기회와 역량을 제공하는 등 위험 관리에 좋으며, ④ 현재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투입 대비 높은 가치로 제공하며, ⑤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재정상태표 정책을 잘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 많은 정비를 하였다. 특히, 대출 및 보증 예산 측정을 위한 신용개혁법을 도입하였다. 영국의 경우 재정상태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 팀을 구성하고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영국의 결산보고서인 공공부문통합결산서를 통해 금액적 효과 및 관리체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부채의 포트폴리오 구분, 재정상태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재무부의 재정 및 공공지출 관련 의사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 재정상태표 관리와 자산부채의 기능별 분류, 정부 투자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 투자 성과에 대한 분석과 생활표준 체계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재정상태표와 복지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정상태표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 재정상태표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공공재정관리에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 한소영 팀장 발표(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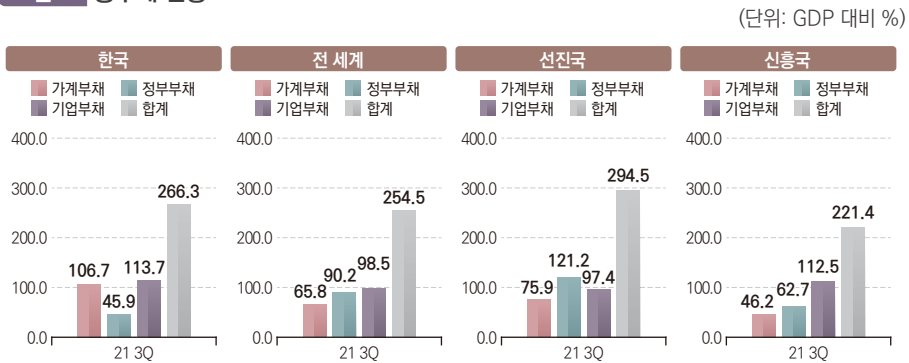
발표3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박윤진 재정통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재정관리에 있어 우리나라는 정부부채의 수준은 낮은 반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가계, 기업, 정부부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눈 부문별 부채의 국제비교, 유동성 위험(만기)과 금융자산을 고려한 부채상환능력(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채부담에 따른 이자비용 및 민간부채와 정부부채 간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2021년 3분기 한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266.3%로 선진국(294.5%)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신흥국(221.4%)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림 2 총부채 현황



출처: BIS(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2022. 4. 30. 조회 기준

총부채 변화를 종합하면 한국의 총부채 증가(GDP 대비 77.3%p)는 선진국(55.2%p) 대비 높고 신흥국(105.5%p) 대비 낮은 편이다. 한국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속도(GDP 대비 35.7%p) 및 규모(GDP 대비 106.7%)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의가 필요하며, 가계부채 중 기타대출 규모가 매우 큰 편이고 증가폭이 커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부문별 실질적인 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이자비용 분석 결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부분에서 총부채는 대부분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상황 속에서 크게 증가한 부채는 금리 인상 등에 따라 부채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부채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가계와 기업부채 등 민간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민간부문의 부실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 박운진 팀장 발표(6. 24.)

• 주요 토론 내용

토론 이상열 교수, 한양대

앞서 발표한 연구주제들이 전체적으로 투명성과 위험관리 특히 투명한 부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다. 정보생산자의 관점에서 국가회계라는 정교한 정보를 어떻게 잘 제공할 것인지, 국가회계의 정보이용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표 1 보증채무와 관련해서 보증충당부채로 기록하는 것과 주식사항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한 주제였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들을 국가회계에도 그 특성을 고려하여 잘 받아들이기를 제안한다.

발표 2 정부의 출자금과 관련하여 공기업과 정부를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작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공기업 부채들의 규모가 너무 큰 것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니 향후 연구주제로 이를 제안한다.

발표 3 투명한 부채 공시의 필요성을 가계와 기업과 함께 분석해본 시의적절한 주제였다. 전 세계적으로 부채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부채는 낮으나 기업과 가계의 부채 수준이 높다는 결론과 관련하여 기업부문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해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 박상연 교수, 배재대

발표 1 공시 구분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증과 관련한 기존의 공시제도의 개선점을 연구에서 보여주길 제안한다.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발표 2 정부보증 측면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었다. 재정상태표에 기반한 재정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국내 재정상태표의 현황만을 보여줬을 뿐이어서 관리 측면에 대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시사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더 강조되길 바란다.

발표 3 정부 부채수준은 낮지만 향후 부채비용 증가 측면에서 앞으로 민간부채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정부회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정책수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간경제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토론 김철희 본부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작성되는 국가결산보고서가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국가재정관리에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재정위험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재정위험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려는 노력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분석한 위험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분석과 비슷하게 예기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정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체계화시킨다면 꾸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 토론(6. 24.)